본 문서의 저작권은 편집자(『Joshua』)에게 있습니다. 무단 도용 및 편집을 금합니다.

문학, 그 참을 수 없는 진지함 (수능 언어영역 문학 접근방법)
⑥ – 시점(視點),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또 다른 많은 차이를 낳는다. ②

written by 『Joshua』

– ①번 글의 개요 –
序: 어디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波 : 무엇을 파악하는가, 누구의 내면을 알고 있는가가 소설 시점의 포인트이다.

저는 앞선 글에서 소설 시점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서술자가 어떠한 등장 인물의 내면 심리를 파악하고 있는가?'이며, 이런 관점에서 시점을 이해하였을 때 '수능'에 어울릴 만한 시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무엇을 제시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소설의 시점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등장 인물의 내면 심리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특정 인물의 내면을 파악하고 그 인물의 심리를 독자에게 전달하여 준다면 독자가 해당 인물의 입장에 동화(同化)되어 소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한다면, 독자가 특정한 인물의 입장을 서술자를 통해 전달받는다는 것은 인물을 서술자라는 '창(窓)'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 인물과 독자를 이어 주고, 독자에게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 주는 사람은 서술자입니다. 즉, 서술자는 인물과 독자 사이에서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소설 내에서 서술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머리에 넣어 두고 생각해 봅시다.

急: 서술자와 등장 인물, 독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애증의 삼각관계! 가까워질수록 멀어지고, 멀어질수록 가까워진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한 드라마인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시트콤이 얼마 전 종영되었지요. 4명의 남녀 등장인물 사이에서 애정 전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끝도 없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콤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시트콤을 보면서 인상깊었던 장면, 가령 유명한 '목도리 키스신'같은 장면을 보면서, **'아정말이지 보는 내가 다 심장이쿵쾅쿵쾅! 지정커플만세♡ㅋㅋㅋ[1]'**라는 식의 반응을 남기기도 했지요. 시청자들은 저 시트콤에 많이 공감했고, 상당히 몰입도 높은 모습으로 이 드라마를 감상하는 경우를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저 장면을 보면서 손발이 오글오글거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다소 황당한 식의 결말로 이 드라마가 종영되자 많은 시청자들이 실망감을 표출하기까지 했지요. 마치, 이 드라마의 결말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라도 주는 것처럼 총 제작자를 공격하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반

1) 모 포탈사이트 기사 '베플' 中

응을 보면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법 같기도 한데요, 적어도 이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몇 개월 동안은 많은 사람들은 그 드라마의 내용을 마치 '우리 주위에서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의 일들인 것 마냥' 가깝게 생각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라운관(혹은 LCD) 안의 이야기를 마치 자신들의 눈 바로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지요. 카메라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tv 속에서 재현된 인물들의 모습, 그들의 행동과 대화, 그리고 온갖 사소한 일들까지도 시청자는 모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TV의 브라운관 속에서 일어나는, 가상의 사건들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몰입할 수 있었지요.

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의 내용에 몰입해서 일희일비(一喜一悲)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드라마 속 인물들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카메라라는 매우 시각적인 매개체만이 시청자와 인물을 연결해주고 있었다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와 극 속 등장 인물들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그렇게 자세하게 해설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령 이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드라마에 이른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쓰인 소설의 서술자처럼 해설자가 있어서, 그 해설자가 등장 인물의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내심의 이야기까지 다 전달해주고, 거기다가 '논평'까지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쉽게 안 그려진다구요? 간단합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의 행동에 죄다 설명이 달린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4명의 등장인물들이 각각 어느 인물에게 마음이 있는지 명쾌하게 알 수가 없어서 많은 이들이 설왕설래(說往說來) 의견을 교환하던 그 장면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각 장면들마다 해설자의 나레이션으로 '세경은 준혁 학생을 그저 귀여운 동생 정도로만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 뿐, 세경의 마음은 이미 확고하게 이지훈을 향해 있었다.'거나, '정음은 준혁과 지훈 사이에서 갈팡질팡, 자신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의 멘트가 삽입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런 해설이 들어갔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도대체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야?'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었겠지요. 극을 이해하는 데에는 훨씬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설자가 존재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준다면 그렇게 많은 이들이 각 장면을 보면서 '둘이 어떻게 될까?'라면서 가슴 설레며 고민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네티즌들이 각종 게시판을 통해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었겠지요. 만약 해설자가 있었다면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몰입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이유가 사라졌을 것이며, 결국 이러한 '해설'의 존재는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매우 현저하게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시청자가 직접 인물들의 행동에 평가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중간에 해설자가 개입하여 이런 저런 각주를 달아 준다면 시청자가 마치 그 드라마가 실제인 것처럼 몰입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기 마련이지요.[2]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에 매우 깊게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해설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시청자들에게 극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자는 스스로 극 중의 상황, 등장 인물의 행동들을 판단해야 했고, 이러한 과정 하에서 시청자들은 드라마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서술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극 속의 등장 인물들이 보다 가깝게, 보다 실감나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간의

2) 이러한 점은 소설에 비해 드라마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이기도 하지요. 소설은 독자에게 판단을 맡기려면 조금은 장황하게 모든 것을 설명, 묘사해야 하는 반면에 영상 매체는 장면 하나를 보여주는 것으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점이,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본 문서의 저작권은 편집자(『Joshua』)에게 있습니다. 무단 도용 및 편집을 금합니다.

매개체가 별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장 인물과 이를 감상하는 사람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이지요.

이러한 점은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에서 시청자와 독자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인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소설 속에서는 독자와 등장 인물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바로 서술자이지요. 조금 상세히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글 앞에서 저는 소설 속 서술자의 위치 파악, 즉 시점(視點)의 핵심은 '등장 인물의 내면 파악'이고, 이를 통해 독자는 해당 등장 인물의 입장에 동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자는 소설 속 사건을 경험하고, 다른 소설의 인물들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며, 결국에는 소설의 주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독자가 소설의 사건, 내용, 그리고 등장 인물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서술자가 어떻게 사건을 전달하는지입니다. 즉, 서술자는 독자와 소설 속의 등장 인물 사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는 서술자가 전달해주는 것만을 알 수 있고, 서술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정보는 알 수 없으므로 서술자는 분명 독자와 등장 인물 사이의 매개체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서술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독자는 소설 속 등장 인물을 보다 가깝게,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도 있고 조금은 거리가 있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마치 드라마에서 단순히 상황만을 전달할 뿐 자세한 '해설'을 해 주지 않았을 때 시청자가 극을 조금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설에서 독자와 인물을 이어 주는 '매개체'인 서술자가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스스로 사건의 경과와 등장 인물의 내면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객관적인 상황만을 말하는지에 의해 독자는 서술자라는 프리즘을 통해 인물을 파악하게 되거나 혹은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 인물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독자가 인물에 대해 보다 판단할 것이 많을수록 독자는 소설의 내용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판단을 그대로 전달받게 되면 독자가 능동적으로 판단할 것이 적어지고, 수동적으로 서술자의 입장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기 때문에 몰입도는 떨어지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독자와 등장 인물 사이의 거리(distance)**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리란 소설을 구성하는 각 주체들 사이에 밀착된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이야기하는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난해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몰입도가 높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독자와 등장 인물의 거리, 즉 독자가 얼마나 등장 인물을 가깝게, 생생하게 느끼느냐는 결국 매개체인 서술자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4개의 시점에서 서술자의 위치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에도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매개체인 서술자가 독자와 등장 인물 사이에 끼어들어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느냐, 아니면 독자 앞에 등장 인물을 직접 보여주고 자신은 그 뒤에 숨어 있느냐에 따라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각 시점에 따른 거리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서술자는 등장 인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인공(주동 인물)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연의 역할을 맡은 서술자는 소설 속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며 다른 등장 인물들과 갈등 관계를 맺고 사건 및 인물들의 행동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독자에게 그대로 전

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독자는 서술자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서술자인 주인공의 입장이 그대로 나에게 이식(移植)되는 것이지요. 등장 인물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는 서술자의 입장을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사건의 주요 인물인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서술자의 주관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는 그 입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게 되고, 소설 속 등장 인물들과 독자 사이에는 서술자가 끼어 있는 셈이 됩니다. 결국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가 제법 멀어지게 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독자가 소설에 쉽게 싫증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서술자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질려버린다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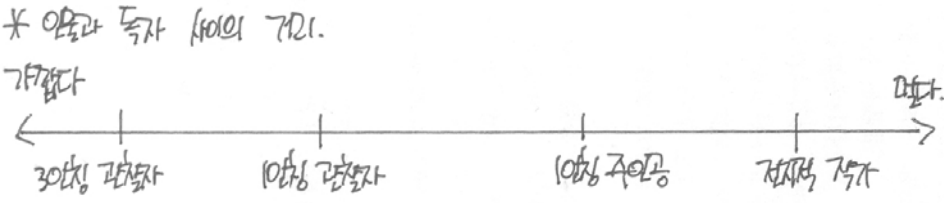
1인칭 관찰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등장 인물이기는 하나, 사건의 중심에 서 있지 않은 주변 인물, 제3자인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했던 1인칭 주인공 시점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전달이 가능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독자는 주동 인물만의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이러한 편향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적 객관적인 제3자의 눈을 통해 사건을 전달받기 때문에 독자는 스스로 사건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서술자가 등장 인물과 독자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등장 인물의 행동을 그대로 전달해주기 때문에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제법 가까워지게 되지요. 서술자는 등장 인물을 독자 앞에 던져 줄 뿐, 사이에서 미주알고주알 설명을 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가장 극대화되어 드러나는 것이 바로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은 CCTV입니다. CCTV가 스스로 스피커를 통해 "이 사건에서 잘못한 인물은 철수에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CCTV는 그저 녹화된 영상과 음성을 재생해줄 뿐,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뿐, 그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으며 인물의 내면 심리 등을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결국 독자는 이러한 화면을 보는 것으로 발생한 사건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독자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왜 발생했는지를 아무런 선입견이 없이 판단할 수 있겠지요. 독자가 판단할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그 사건은 독자에게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즉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자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사건에 대한 평가, 등장 인물의 심리 같은 것은 전달해주지 않기 때문에 독자는 사건의 경과, 등장 인물의 행동을 직접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독자와 등장 인물 사이의 거리는 가장 가까워지게 됩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자는 등장 인물 뒤에 완벽하게 숨어서 사라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독자는 서술자의 존재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내가 판단할 부분이 극히 적어지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독자는 등장 인물을 멀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자는 주인공인 등장 인물로, 자신의 평가를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지만, 독자가 이에 전혀 반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동 인물인 서술자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는 등장 인물 정도가 아닙니다. 독자에게 사건을 전달해주는 서술자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적(全知的)인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존재, 모든 이의 마음 속까지 파악하는 신(神)이 이야기하는 것

본 문서의 저작권은 편집자(『Joshua』)에게 있습니다. 무단 도용 및 편집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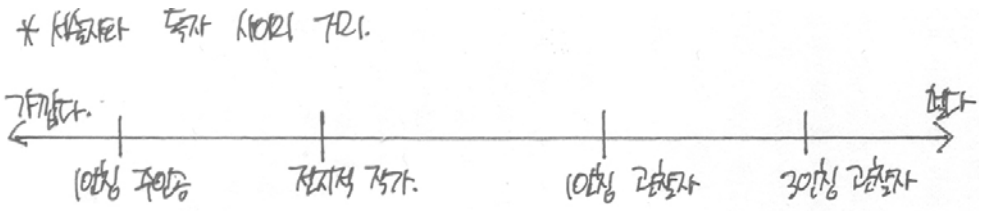
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신의 입장을 독자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이해가 안 되면 예전에 드라마에서 나왔었던 궁예의 관심법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미륵불이다. 나는 모든 게 다 보인다. 나는 너의 마음 속을 다 알고 있다!"는 그의 말에 많은 신하들이 그의 말을 반박하지 못하고 그의 의도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서술자의 평가를 독자는 '1mg'도 반박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독자는 그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채 서술자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독자와 등장 인물 간의 거리는 상당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림 1 - 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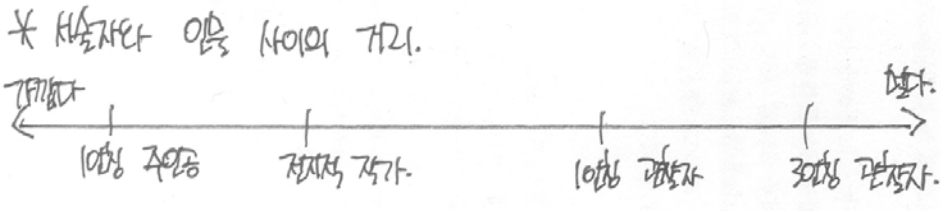
여기까지 이해한다면 그 다음은 조금 쉽습니다. 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를 따져볼 수 있는 것처럼,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 서술자와 등장 인물 사이의 거리 또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역시 각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요. 이는 독자가 얼마나 서술자의 서술에 의존해서 사건을 파악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반대입니다. 서술자가 인물과 독자 사이에 끼어들어가 있을 때보다 인물의 뒤에 숨어 있을 때에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는 가까워지지만, 그럴 경우에 서술자는 자신이 전면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와의 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서술자가 인물과 독자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 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는 반면, 독자와 서술자 간의 거리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독자와 등장 인물의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독자와 서술자 간의 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일 때가 1인칭 관찰자 시점보다 가깝고, 3인칭 관찰자 시점의 경우에는 1인칭 주인공/관찰자 시점보다 멀어지게 됩니다.(서술자가 완전히 사건의 밖에 존재하며, 독자가 서술자의 존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유의할 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전지적 작가 시점의 경우 서술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도 독자에게 전달해 주지만[3] 사건을 겪는 당사자가 아닌 사건의 밖에 존재하는 제3의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독자는 전지적인 서술자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독자는 인물 및 사건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서술자의 평가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되지요. 다만 1인칭 주인공 시점과는 달리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닌 소설의 밖에 존재하는 가상의 존재가 이야기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비해서는 독자와 서술자 간의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의 경우 독자와 서술자 사이의 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보다는 멀면서도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비해서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특히 전지적 작가 시점이 쓰인 대부분의 고전 소설에는 서술자가 직접 각 인물의 행동을 평가하는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장치가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서술자가 내린 평가이기 때문에 독자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림 2 –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는 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와 '거의'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는 서술자와 인물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서술자는 그저 인물의 행동을 관찰만 할 뿐 인물의 행동에 대해 그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자는 주인공으로 다른 등장 인물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따라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경우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지요. 전지적 작가 시점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서술자는 등장 인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며, 때때로 그러한 인물들의 행동에 대해 평을 남기기도 하므로(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가까운 편입니다. 다만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도 정확하게는 3인칭으로, 자신이 다른 인물들과 직접 온갖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자보다는 인물과의 밀착도가 크지 않지요. 반면 관찰자 시점의 경우에는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에 개입하거나, 인물을 평가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완벽하게 이야기의 밖에 있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보다는 주변 인물이기는 하여도 소설 속에 존재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가 약간은 더 인물과 가까이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3인칭 관찰자 시점의 경우 서술자와 등장 인물 사이의 거리는 매우 떨어져 있게 되지요.



<그림 3 –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그렇게 쉽게 머리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조금은 관념적이고 난해한 측면이 있지요? 이 '거리'라는 녀석이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는 것이면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편할 테지만, 불행하게도 수능 기출문제 중에서 이러한 시점의 차이와 거리의 변화를 물어본 대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은 예전의 문제인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2000학년도 수능 55번~60번 지문>

(전략 – 편집자)

본 문서의 저작권은 편집자(『Joshua』)에게 있습니다. 무단 도용 및 편집을 금합니다.

(나)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굽실거린다.

>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 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 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기를 복복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후략– 편집자)

– 김유정, 「동백꽃」 –

<2000학년도 수능 59번>

(나)의 □를 <보기>로 바꾸었을 때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한 것은? [2점]

<보 기>

그의 부모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무 거처도 없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 때 그들을 구해 준 것은 바로 점순네였다. 점순네의 도움으로 그들은 집터를 마련할 수 있었고, 또 양식이 떨어지면 곧바로 빌려다 먹을 수 있었다. 그 은혜에 감복하여 그의 부모는 늘 고마워했고 인품으로는 그런 집이 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점순네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쓸데없는 행동을 삼가라고 주의를 주었던 것이다. 더구나 나이가 열일곱이나 되는 그가 동갑인 점순과 어울려 다닌다면 동네에 나쁜 소문이 나는 것은 불을 보듯 번한 노릇이고, 또 자칫 마름집을 노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무례한 행동으로 소작지가 떨어지고 집에서도 쫓겨날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① 극적 긴장감을 뚜렷이 느낄 수 있다.
② 인물의 육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③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
④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⑤ 인물이 처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⑤

많은 학생들이 접해 보았을 김유정의 '동백꽃'을 지문으로 하여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앞/뒷부분은 생략했는데요, 생략된 부분에는 '나'가 점순이가 감자를 주는 것을 안 받자 점순이가 단단히 삐지게 되고, 화가 난 점순이가 '나'의 닭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안에 제시된 부분을 <보기>와 같이 고쳐 쓴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지요. 제시된 장면에서 서술자는 '나'이고 '나'가 이야기하는 사건들은 모두 '나'가 직접 겪은 일들이므로, 제시된 장면의 시점은 전형적인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기>에서 고쳐 쓴 부분은 '나'의 입을 통해 '나'의 부모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가 직접 부모님의 내면 심리를 파악하여 독자에게 전달해주고 있지요. 서술자가 등장 인물의 내면 심리를 비롯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全知的) 점을 고려한다면 <보기>에서 제시된 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고쳐 쓸 경우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 전지적 작가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 간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를 하나하나 확인해보면, 먼저 ①번에서 이야기하는 극적인 긴장감은 지문과 <보기> 모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점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가 겪은 사건의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았으니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1인칭 주인공 시점 모두 서술자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경우 등장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보다는 인물의 육성을 더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②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등장 인물의 내면 심리를 빠짐없이 알고 있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보다는 내면 심리를 훨씬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지요. ④번도 잘못되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소설 밖에 있는 제 3의 존재이기 때문에,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비해서는 멀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③번도 옳은 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⑤번이지요. 고치기 전(지문의 내용)에서는 '나'가 나의 이야기를 직접 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이 글에 녹아난 반면, 고친 후(<보기>의 내용)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절대적인 존재가 소설 속 상황과 내면 심리를 정리하여 전달해주기 때문에 고치기 전에 비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글이 되었던 것입니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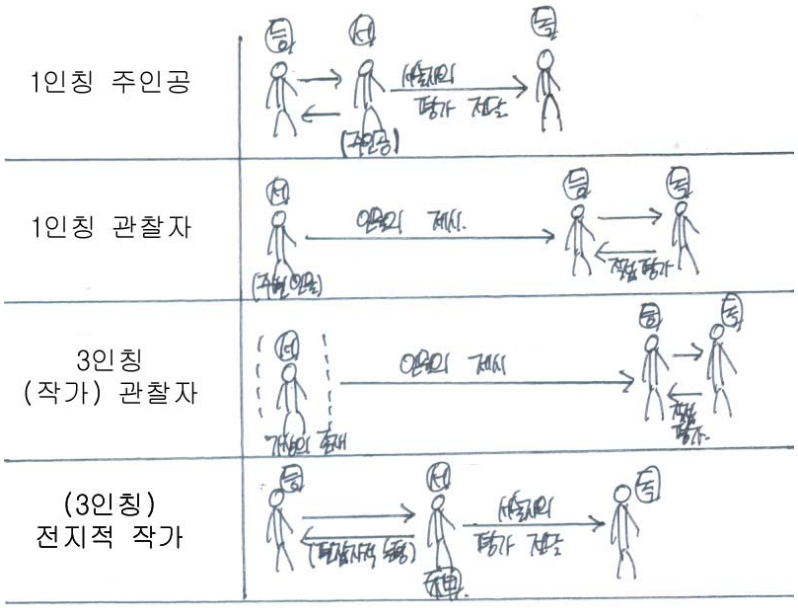
이 '거리'라는 개념이 제법 난해하기 때문에, '겨우 2000학년도 수능에 문제 하나 나온 것까지 알아야 해요?'라고 생각할 학생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개념은 소설의 시점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시험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점의 차이에 따른 거리의 변화를 직접 물어본 문제는 아직까지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 '거리' 개념 자체는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하고, 선지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지요. 평가원에서도 이 '거리'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최근 평가원은 언어 영역 문학 부분의 난이도를 조정할 때 시는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하더라도 소설만큼은 확실히 변별력 있게, 난이도 있게 출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소설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출제될 경우 '거리'란 고난이도 문제에서 얼마든지 응용이 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점이 제가 이번 글을 통해 조금은 어려운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 쓴 이유이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차분히 읽어본 후 반드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 두기를 바랍니다.

앞서 설명했던 각 시점 간의 차이, 그리고 시점에 따른 독자와 인물, 독자와 서술자 간의

4)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쓰인 소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고전 소설은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이지요. 전지적 작가가 직접 소설 속 인물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흥보 착한 놈, 놀부 이 나쁜 놈!'이라고 평가를 해 주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조를 보일 수 없습니다. <보기>에서 고쳐 쓴 부분의 경우 서술자가 내면 심리와 상황을 정리하여 전달해 줄 뿐, 자신이 직접 이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고치기 전보다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전지적 작가 시점의 경우 작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문서의 저작권은 편집자(『Joshua』)에게 있습니다. 무단 도용 및 편집을 금합니다.

거리를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4 – 4개의 시점 및 거리 총정리>
서 = 서술자 / 등 = 등장 인물 / 독 = 독자

結: 각 시점 간의 차이를 단순히 외워버리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글 맨 처음(⑤번 글 인트로)에서 저는 1인칭 주인공/관찰자, 3인칭 관찰자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그 4개의 시점을 단순히 외워버리는 것은 수능시험의 문제를 푸는 데에 있어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각 시점 간의 차이 및 거리에 관한 것을 모두 풀어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종종 시점에 따른 거리의 변화를 그냥 단순히 외워버린 후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보다 독자와 서술자 간의 거리가 짧다. 그러니 이 문제의 답은 ③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먼저, 각 시점에 따른 거리의 변화는 닥치고 외우면 외워질 정도로 쉽지 않은데다가, 설령 그렇게 외운다고 해도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잊어버릴 확률이 99%에 수렴할 겁니다. 거리(distance)라는 개념과 4개의 각 시점의 특징과 차이를 잘 이해한다면, 저것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글은 저 스스로가 2010년 4월 2일 현재까지 제가 본 그 어떠한 언어영역 책보다 훨씬 자세하고 상세하게 각 시점을 설명했다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사항을 최대한 쉽게 풀어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결론만을 외우는 것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굳이 제가 이렇게 노력을 들여 이 부분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았겠지요.[5] 절대 외우지 마세요.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작가 관찰자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4개의 시점 간의 차이를 잘 비교해보고, 깊게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이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이 향상되고 내공이 쌓이는 법입니다.

5) 그 덕분에 글의 업데이트가 상당히 늦었네요. 양해를 구합니다.